

전남

남도음식 큰잔치에 '1km 인절미'

순천시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제 16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행사기간 동안 지난해 고추 줄에 이어 인절미로 기네스(Guinness) 세계기록에 도전한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축제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2시부터 낙안읍성 주무대 앞에서 주민과 관광객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긴 인절미 만들기' 세계기록 도전이 나선다.

현재 이 분야 한국기록은 지난 2007년 충남 공주시에서 세운 700m 길이의 인절미로, 시는 이보다 무려 300m 이상 긴 1천2백m 길이의 인절미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도전에 사용할 순천 참쌀만 해도 소요량이 2t(1천400만원 상당)

순천시 다음달 1일 기네스 도전

참쌀 2t 소요... 참여자만 700명

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순천 참쌀의 전국적인 홍보와 함께 쌀 소비촉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쌀 외에 풍가루만 300kg(270만 원)이 들어가고, 행사장이 좁아 1.8m 짜리 탁자 330개를 2자 형태로 배치한다. 시는 인절미를 만들기 위해 강진군에 소재한 방앗간 9개소에 참쌀을 찌는 등 사전준비를 맡겼다.

또한 시는 행사 참여자를 7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행사 당일에도 많은 관광객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완성된 인절미는 불우한 이웃 돕기를 위해 판매하거나, 축제 관광객들에게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이미 낙안읍성 성곽 위에 1천500명이 참여해 1.4km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긴 고추 줄을 엮어 광주·전남 최초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또 도전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 나누주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들기도 했다.

한국기록원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기록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 모두가 한마음이 돼 인절미가 끊어지지 않도록 길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인절미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한다는 것은 순천시의 순천 참쌀을 널리 알리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축제 관계자는 "다양한 먹거리 체험 외에 가족이나 연인들이 참여하는 체험관광의 재미를 더해주기 위해 기네스 도전을 기획했다"면서 "이번 도전이 성공한다면 순천시는 한국 최초로 기네스 기록을 2개나 보유할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은중기자 ejkim@

흑산도, 색을 입는다

신안, 섬 색채 디자인사업 추진

'사계절 해상 관광지'인 신안군 흑산도 일원이 아름다운 색으로 디자인된다.

신안군은 여객선이 오가는 흑산도 등 항로 가시권 섬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한 '색채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흑산, 비금, 도초면 등 5개면 10개 섬에 59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선착장과 마을 등을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단장하는 색채 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1차사업으로 지난 2004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흑산면 장도마을의 낡은 지붕을 고친 후 아름다운 색으로 디자인해 장도를 찾는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 9월 항로에서 보이는 지붕 있는 매립지에 군 상징물인 대형 갈매기와 황금색 달팽이 벽화를 그려 넣어 혐오시설을 관광자원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신안의 섬을 가장 가고싶은 섬, 머물고 싶은 섬으로 조성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곡성 '자연생명농업' 국내외 농업인 주목

日·말레이시아 연수단 친환경농업 시찰... 美도 방문 예정

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순환 생명농업'이 국내외 농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국내 농업인은 물론 일본, 말레이시아 등 외국 농업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나주시, 강진군, 함안군 등 인근지역 농업인과 관계자들과 일본 자연농업 연수단 20명이 다녀갔다.

지난 23일에는 APO(아시아생산성본부) 말레이시아 자연농업 연구

시찰단 12명이 조한규 지구촌자연농업 연구원장과 함께 방문해 자체실습장과 시설채소, 수도작, 과수, 축산단지 등 현지를 둘러보면서 자연농업 실천 과정상 문제점과 예외사항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의 장을 펼쳤다.

말레이시아 연구시찰단엔 키안 추씨는 "한국의 자연농업이 곡성군에서 활짝 꽃 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또한 28·29일에는 미국 하와이 힐로스 자연농업 관계자 16명이 곡성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연순환 생명농업'은 농가 스스로 친환경 영농자재를 제조 사용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쉽고 효율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이다.

곡성군은 지난해부터 TF팀 구성, 자체실습장 운영, 시범사업을 통한 연시회와 연찬회, 종합평가회 등을 통해 내실을 다져왔다.

조재래 군수는 "농업이 주어진 삶을 사는 곳이 아니라 일본·중국을 물론 나아가 미국·유럽의 농업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터전이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계중기자 kjkim@

전남 댐·저수지 주변

217개소에 숲 조성

전남지역 댐과 저수지 주변에 숲이 조성된다.

전남도는 저수지와 간척지의 수자원과 수질정화 기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도내 댐·저수지 217개소에 2천150ha의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댐과 저수지 주변에 숲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저수지 등에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토사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수중을 혼합해 심고, 주민 헐터 및 건강기능까지 결합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모기 퇴치를 위해 편백나무를 중점 식재하고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가시나무·백합 나무·느티나무·이팝 나무 등을 혼합해서 심을 계획이다.

도는 우선 내년에 54개소 430ha에 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기존의 조립사업비를 활용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 22억6천1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마을 주변 저수지 숲 조성을 통해 수질도 개선하고 경관도 갖추는 등 누구나 쉽게 찾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길기자 cki@



농협구례교육원, 일손돕기

농협 구례교육원(원장 김수공) 교직원 30명과 교육생 100여 명은 지난 26일 일손이 부족한 구례군 용방면 사립리 황의택(69)씨 단감농장에서 단감 수확과 선별작업 등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농협 구례교육원 제공>

목포, 역사·문화 테마관광 활성화

市-코레일, 6개 여행상품 운영 협약

목포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패키지 여행상품 6개를 선정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분부와 대표상품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목포 지역의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역사, 문화가

담긴 6개의 테마관광 상품을 전국에 알리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에 등록할 목포시 대표 여행상품은 '역객선으로 떠나는 다도해 투어'(당일 코스) 1개와 '100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남도 맛 기행', '흔적 찾기 추억여행'(1박 2일 코스) 등 3개, '목포기점 서남권 연계관광', '흔적 찾기 추억여행'(2박 3일 코스) 등 2개다.

시 관계자는 "여행 상품 활성화를 위해 KTX 좌석 할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철도이용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조만간 전국 11개 철도공사 지역본부 상품개발 담당자를 초청해 캠페인 투어를 하는 등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해양사고 출동 빨라진다

여수해경, 인명구조용 고속보트 배치

여수해역에 인명구조용 최신에 고속 제트보트(사진)가 배치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바다에서 고립자나 익수자 등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명구조용 최신에 고속 제트보트 1척을 최근 배치, 운용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길이 7.65m, 너비 2.55m 크기에 2.2t급 규모의 이 제트보트는 250마력짜리 엔진 1기를 장착해 최대속력이 40노트(시속 75km)에 달한다.

특히 레이더와 DGPS(정밀위성 측위시스템) 등 각종 위성 항법장치를 갖춘데다 물을 분사해 앞으로 나가는 '워터 제트'(water-jet) 방식의 추진장치를 사용해 얕은 바다나 양식장이 밀집한 해역에서 야간에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인명 구조정과 달리 선실이 고정식 밀폐 구조로 제작돼 겨울철이나 악천후시 승조원 등을 보호할 수 있다. 제트보트 선미에는 수면 높이의 보조감판이 있어 익수자 구조시 적은 인원으로도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정적인 설계 구조나 빠른 속력, 한층 보강된 항해장비 장착 등으로 연안 해역에서의 각종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박성태기자 mhahng@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1364-8700),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and price, and a list of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다산공인중개사. Includes contact info (010-7154-6896),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floor area and price, and a list of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OMECON. Includes contact info (062-233-2222),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floor area and price, and a list of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다사랑(유통). Includes contact info (062-263-7335),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floor area and price, and a list of services.